

왕권 의례요(儀禮謠) <도술가>의 맥락과 의미

정진희*

차 례

1. 서론
2. <월명사도술가>조의 구성과 <도술가>의 성격
3. <도술가> 구연 의례의 전말
4. ‘꽃’과 ‘미륵’: <도술가>의 의례요적 구성과 의미
5. 결론

| 국문초록 |

이 글은 <도술가>를 왕권 의례요로 활용된 향가로 보고, 활용의 맥락과 의례요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삼국유사』 <월명사도술가>조의 기록에 따르면 <도술가>는 두 개의 해가 뜨는 변고를 해소하기 위해 승려 월명사가 부른 노래이며, <도술가> 연행으로 ‘꽃’이 소환되어 일기가 해소되었고, 미륵은 이일병현의 변고가 해소된 후 동자승의 모습으로 현현했다고 한다. 이 글은 <도술가>가 산화공덕의 불교적 꽃 의례를 진가(眞假)를 판별하는 꽃을 소환하는 국선지도의 의례로 전환시켜 이일병현의 변고를 해결했다고 보는 한편 미륵의 현현은 변기가 해결된 세상을 전문성왕이 지배하는 이상적 세계로 의미화하는 기호로 보았다. <도술가>에 나타난 꽃과 미륵은, 불교적 표상이기도 하지만 신라 전래의 국선지도에 기반한 상징적 의미와도 연결되는 표상이기도 한 것이다. <도술가>는 향가가 왕권을 위한 의례요로 포획될 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창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바, 왕권의 의례요와 민간 향어 노래의 상관성을 해명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핵심어 : 향가, 도술가, 안민가, 제망매가, 찬기따랑가, 삼국유사

1. 서론

『삼국유사』의 「감통」편 <월명사도술가>조는 두 개의 해가 뜨는 변기가 발생하자 그것을 해소할 목적에서 설행된 의례에서 <도술가>라는 노래가 구연되

* 아주대학교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국문학사상 ‘향가’라는 갈래로 분류되는 <도솔가>는, 연행의 기능적 맥락으로 볼 때 의례의 한 수단으로 활용된 일종의 의례요였던 것이다. 선행 연구는 <도솔가>의 의례요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례의 성격이나 의례요로서의 <도솔가>가 지니는 종교적·사상적 기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제출해 왔다. <도솔가>를 단순한 주술의 노래로 보는 입장에서부터 고차원적 종교인 불교에 기반하는 노래로 보는 시각까지 사뭇 상반되는 선행 연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솔가>를 당대의 국왕을 찬미하는 악장, 즉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례요로 보는 선행 연구도 있다.¹⁾

이와는 달리, <도솔가>가 연행된 시공간의 종교적·사상적 복합성을 지적하고 따라서 <도솔가>는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에 경도되어 해석하기보다는 <도솔가>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복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 고시가 작품은 그것이 창작되고 향유된 실제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찰될 때 텍스트로서의 의미론적 통일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근자의 한 목소리들³⁾ 염두에 둘 때, <도솔가>의 복합적 성격에 주목한 선행 연구는 의례요로서의 <도솔가>의 실제에 접근하는 타당한 시각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도솔가>에 대한 최신의 연구 동향은 창작 및 연행 시공간의 종교적·사상적 복합성과 연동되는 <도솔가>의 복합적 면모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도솔가>는 왕권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그것의 불교적 해결을 위해 창작된 불교적 의례요라는 견해나⁴⁾ 천문적 이변에 대해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교적 기원문이라는 입장⁵⁾ <도솔가>를 불교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1)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정리는 김기중, 「<도솔가>, 불국토의 선언」, 『한국시가연구』 38, 2015, 226-229쪽 참조.

2) 최선경, 「도솔가의 제의적 성격」, 『연민학지』 9, 연민학회, 2001. 참조.

3) 임주탁, 「고시가 연구의 현재와 미래」, 『어문학』 134, 한국어문학회, 2016.

4) 조현설, 「두 개의 태양, 한 송이의 꽃-월명사 일월조정서사의 의미망」, 『민족문화사연구』 54, 2014; 김기중, 앞의 글.

5) 황병익, 「산화·직삼·좌주의 개념과 <도솔가> 관련설화의 의미 고찰」,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 2015.

<도술가>를 짓고 부른 월명사가 스스로를 가리켜 불교 노래는 모르는 ‘국선지도’라 밝혔다는 점을 명확히 해명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도술가>가 무격신앙과 불교를 하나로 융합하는 악장, 즉 궁정의 노래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으나,⁶⁾ 이는 <도술가>를 신들린 사제의 공수처럼 해석함으로써 <월명사도술가>조의 전반을 지배하는 불교적 분위기, 이를테면 이일병현의 변괴를 맞아 불교 의례인 산화공덕의 의례가 준비되었다거나 변괴가 사라진 후 미륵이 현현했다거나 하는 기록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남긴다. 선행 연구에서 거론되어 온 ‘왕권’과 ‘불교’, ‘무격신앙’ 또는 ‘무속’, 나아가 ‘국선지도’라는 핵심어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도술가>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도술가>가 자리한 맥락과 그 맥락에서 발현되는 <도술가>의 의미를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성이 새삼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이 글은 <월명사도술가>조의 구성을 먼저 살핌으로써 이 기사 안에서 <도술가>가 어떤 노래로 규정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월명사도술가>에는 <도술가>뿐만 아니라 <제망매가>로 알려져 있는 향가도 등장하며, 월명사가 피리를 불어 달을 멈춰 세웠다는 일화도 기록되어 있다. 이 일련의 기록들과 <월명사도술가>라는 제목을 통해, <도술가>가 어떤 성격의 노래로 규정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미리 말하자면 이 글은 <도술가>가 ‘감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이한 결과를 바라며 구연된, 의례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의식요임을 새삼 강조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도술가>가 기능상 의례요라는 사실을 전제로 <도술가>가 구연된 의례의 전말을 살피고자 한다. <도술가>가 연행된 의례는 어떤 목적에서 기획되었는지, 의례의 설행은 어떤 형식을 지녔을지, 의례의 결과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등을 <월명사도술가>의 기록에 따라 살펴 봄으로써, <도술가>는 화랑도에 뿌리를 둔 국선 무리의 사유가 왕권 및 불교와 얽히는 가운데 형성된 노래임을 밝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도술가>를 의례요라는 차원에서 풀이해 보고자 한다.

6) 엄국현, 「도술가 연구」, 『한국민족문화』 4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어학적 풀이에 기반하는 해석이어야 마땅할 터이나, 여기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례에서 구연된 의례요라는 데 착목하여 <도솔가> 읽기를 시도함으로써 <도솔가> 해석의 가능성 하나를 제시해 볼 것이다. <도솔가>의 핵심적 소재이자 시어인 ‘꽃’의 상징성, 미륵이 등장하는 <도솔가>의 마지막 행이 지니는 의례요적 기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도솔가>의 의례요적 구성과 각 행의 의미를 풀이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솔가>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몇 가지 구체적인 논점들도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두 개의 해가 동시에 뜨는 변괴의 상황을 해결한 주체가 미륵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하는 문제, 꽃이 사머니즘적 주술의 도구인가 아니면 불교적 주술의 수단인가 하는 문제, 일연의 한역시에 ‘은중직삼’으로 옮겨진 ‘곧은 마음’이란 무엇이며 또 누구의 마음인가 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도솔가>가 어떤 맥락에서 형성된 노래인가를 따져 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도솔가>라는 노래의 뜻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월명사도솔가>조의 구성과 <도솔가>의 성격

주지하다시피 <월명사도솔가>는 『삼국유사』 5권의 「감통」 편에 실린 기사 가운데 하나이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이 신라 경덕왕 때에 있었던 어떤 일을 ‘감통’이라는 주제로 묶어 기술한 기사 중의 하나가 <월명사도솔가>라는 말이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월명사도솔가>는 제목 그대로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 부른 일이 먼저 서술되어 있고, 뒤이어 <도솔가>의 작가이자 연행자인 월명사에 대한 일화가 두어 가지 덧붙여진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저자 일연의 의미 부여와 찬(讚)으로 마무리된다. 찬을 제외한 기사의 구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삽화 1 : 월명사가 산화공덕의 의례에서 <도술가>를 지어 불렀더니 신이한 일이 일어났다. → 이일병현의 변괴가 사라졌고, 미륵이 현현했다.

삽화 2 : 월명사가 누이동생을 위한 재에서 향가를 지어 불렀더니 신이한 일이 일어났다. → 지전이 서쪽 하늘로 사라졌다.

삽화 3 : 월명사가 피리를 불렀더니 신이한 일이 일어났다. →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

삽화들의 의미 : 향가는 종종 천지귀신을 감동시켰다.

기사의 제목으로 보나 분량으로 보나, 이 기사의 중심 사건은 삽화 1이다. 하늘에 해 둘이 나타나는 ‘이일병현’의 변괴가 오래 지속되었는데, 변괴의 해결을 위한 의례에서 월명사가 <도술가>를 불렀더니 그 변괴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미륵이 동자의 모습으로 현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일연은, 월명사가 의례에서 노래를 지어부른 행위로 인해 신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을 ‘감통’이라는 제목 아래 묶었을 터다. ‘향가가 종종 천지귀신을 감동시킴이 한두 사례가 아니었다’는 말미의 서술은, 월명사가 <도술가>를 지어 부른 사건을 ‘감통’으로 의미화하는 서술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삽화 2와 삽화 3은 삽화 1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덧붙여진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들이다. 삽화 2에서는 죽은 누이를 위한 의례에서 월명사가 노래를 불러 일어났던 신이한 사건을 기술하고, 이어지는 삽화 3에서는 월명사가 어떤 의례에서의 노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리라는 악기 소리로 달을 감동시켰음을 덧붙이는 것으로 월명사가 삽화 1에서 보여준 천지귀신을 감동시키는 노래의 힘 또는 효과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월명사는 피리 소리나 향가를 통해 천지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른바 ‘음악적 사제자’였던 것이다.⁷⁾

7) 노래를 구사하여 이른바 ‘감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월명사는 해탈과 중생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적 승려라기보다, 일찍이 왕권 강화를 위해 조직되었다가 시대적 소임을 다하여 제도적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주변화한 국선지도의 사제라고 본다. 국선지도가 유입 종교인 유불선 및 신라 토착 신앙 모두에 기반하여 형성된 조직이자 사유체계라 할 때, 월명사는 민간 차원의 빙의적 무(巫)와도 변별되는 사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사회에 수용되어 있던 종교적 사유들과 접점을 지니면서도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국선지도의 사제라는 것이

정리하자면 <월명사도술가>조 기사는 <도술가>와 관련된 삽화 1을 중심으로 삽화 2와 삽화 3을 덧붙임으로써 <도술가>라는 노래가 지녔던 힘을 또다른 노래나 음률의 사례를 통해 부연하고 강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⁸⁾ 여기에 필자 일연이 해석한 사건의 의미가 짧게 덧붙여지고, 찬으로 마무리된다. 요컨대 <월명사도술가> 조의 기사는 ‘월명사가 의례에서 부른 향가 <도술가>가 천지귀신을 감동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술가>는 초월적이고 신이한 결과를 기대하며 연행되었고 또 그 연행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의례요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3. <도술가> 구연 의례의 전말

그렇다면 <도술가>는 어떤 성격의 의례에서 연행된, 어떤 성격을 지닌 의례 요였는가? 주술과 불교와 악장 사이를 오가는 논쟁의 장에 뛰어들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도술가>가 연행된 의례의 전말을 살필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월명사도술가>조의 중심 삽화인 <도술가>의 연행과 그 전후의 이야기는 그것이 구연된 의례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바, 의례의 실행이라는 차원에서 <도술가> 관련 삽화의 서사를 정리해 보자.

<표 1> <도술가>가 연행된 의례의 실행 과정과 관련 서사

번호	의례 실행 단계	서사
1	변괴 발생	두 개의 해가 떠서 사라지지 않았다
2	산화공덕 의례의 필요성 대두	일관이 산화공덕의 의례를 행하면 변괴를 없앨 수 있으리라고 했다

월명사의 승려로서의 특징이라 하겠다.

8) <월명사도술가>의 중심이 <도술가>에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임주탁, 「소통 문맥을 통해 본 향가의 특성과 그 의미」,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2012, 132쪽.

번호	의례 실행 단계	서사
3	의례 준비	조원전을 깨끗이 하고 왕이 청양루에 거둥하여 연승을 기다렸다
4	의례 형식의 변경	연승으로 뽑힌 월명사가 ‘성밖’은 못하고 ‘향가’만 할 수 있다고 하여 왕이 허락했다
5	의례 실행	월명사가 <도술가>를 지어 불렀다.
6	변괴 해소	두 개의 해가 뜨는 변괴가 즉시 사라졌다.

하나여야 마땅한 해가 두 개가 뜨는 상황이 발생한다. ‘변괴’이니 이를 없애야 할 텐데, ‘일관’은 ‘산화공덕의 의례’를 하면 그 변괴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천문을 살피는 관리인 일관이 산화 공덕의 불교 의례를 제안했던 것이다. 의례의 공간이 ‘조원전’에 마련되고 국왕이 직접 거둥한 것을 보면, 그 의례는 왕조 차원의 국가적 의례였음에 틀림없다. 왕조의 의례는 일정한 사전 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일 터이나, 두 개의 해가 뜨는 매우 기이한 변괴를 맞아 임시적이고 일회적인 왕조 의례가 기획된 것이다. 경덕왕대 왕조 의례의 전반적 성격이 어떠했는가와는 별개로, 일관이 제안한 의례가 ‘산화공덕의 의례’라고 지칭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의례는 불교적 초월성에 기대어 변괴를 해결하려 한 의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그 의례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통상적인 의례가 아니었던만큼 의례의 실행과 관련된 정규가 없었던 듯하다. 국가 차원에서 행하는 불교적 의례, 즉 ‘산화공덕’이라는 의례의 주된 틀은 정해졌으나, 의례를 집전할 사제자마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일병현의 변괴를 없앨 목적으로 기획된 국가적 의례의 준비란, 조원전을 깨끗이 하고 왕이 청양루에 거둥하여 의례를 거행할 ‘연승’을 기다리는 것이었을 터다.

주지하다시피 이 의례를 집전할 인연을 맺게 된 승려는 월명사였다. 왕은 월명사에게 의례를 집전하라고 명하는데[命開壇作啓], 월명사는 난색을 표한다. 자신은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어 향가만을 알 뿐 성밖(聲梵), 즉 불교 노래는 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이다.)⁹⁾ 기획된 의례가 불교식 의례였음이 재확인되는

한편, 월명사가 그러한 불교 의례를 집전할 능력이 ‘없음’ 승려였음이 또한 확인되는 장면이다. 성범(=불교의 소리)과 향가(=국선지도의 노래)가 대비되는 가운데,¹⁰⁾ 왕은 향가를 써도 좋다고 허락한다. 의례를 집전할 연승으로 성범은 모르고 향가만 아는 월명사가 등장하면서, 의례는 원래의 기획과는 달리 향가가 구현되는 의례로 그 실행의 형식이 변화했던 것이다. 월명사는 누이동생을 위한 사적 의례에서 향가를 불러 지전을 서쪽 하늘로 사라지게 했던 인물이고, 또 피리 소리로 달을 멈춰 세우기도 했던 이다. 다시 말해 월명사는 국선지도에 속한 인물로서 음율의 힘, 노래의 힘으로 천지귀신을 감동시키는 사제였던바, 월명사가 향가를 불러 의례를 집전했다는 것은 불교적 초월성에 기대는 불교 의례로 기획되었던 의례가 국선지도의 음악적 사제 월명사가 부르는 노래의 힘에 기대는 의례로 그 성격이 바뀌어 실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 불렀더니 ‘일과’, 즉 해가 둘 뜨는 변괴가 바로 사라졌다. 그런데 <월명사도솔가> 기사는 이 의례가 단지 자연현상의 변괴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다른 신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 미륵의 현현이 바로 그것이다.

왕이 이것을 가상히 여겨 좋은 차 한 봉과 수정염주 108개를 내렸다. 이때 난데 없이 동자(童子) 하나가 나타났는데, 걸모습이 선결(鮮潔)하였다. 무릎을 꿇고 차와 염주를 받들더니 전각 서쪽 작은 문으로 나갔다. 월명사는 내궁의 심부름꾼이겠거니, 왕은 월명사의 종자이겠거니 했지만 알아본즉 둘 다 아니었다. 왕이 몹시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뒤를 따르게 하니, 아이는 내원 탑 속으로 들어가 사라지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화의 미륵상 앞에 있었다.¹¹⁾

9) 이 때의 ‘성범’은 중국의 한어 범패가 아닌 인도에서 발원한 범어 범패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통일 신라 사회에서 익히 통용되고 있었다. 윤소희, 「월명사의 성범에 관한 연구」, 『국악원 논문집』 31, 2015 참조.

10) 왕은 월명사에게 ‘계’를 지으라고 명하지만, 월명사는 왕의 허락을 얻어 ‘도솔가’를 지어 부른다. ‘계’와 ‘도솔가’의 대비는 불교 음악 내지는 불교적 기도사와 향가의 대비에 다름 아니다.

11) 원문은 일연(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4, 464쪽. “王嘉之, 賜品茶一甌, 水精染珠百八箇. 忽有一童子, 儀形鮮潔, 跪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 明謂是內宮之使, 王謂師之從者, 及玄微而俱非. 王甚異之, 使人追之, 童入內院塔中而隱, 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 본문은 같은 책을 참조하여 필자가 현대어로 옮긴 것이다.

왕이 하사한 물품을 가지고 간 동자가 탐 속으로 사라지고 동자가 가지고 간 물품은 미륵상 앞에 놓여 있었다는 서술은 동자가 바로 미륵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독해가 가능한 까닭은 「감통」의 다른 조목에 보이는 부처의 현현 및 그 현현을 인간에게 알리는 방식이 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흥우성(憬興遇聖)>조를 보자. 고승 경흥이 말을 타고 대궐에 들어가기 위해 그 시종들이 준비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광주리를 진 채 하마대 위에 쉬고 있는 한 거사를 본다. 광주리 속에 마른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시종이 꾸짖자, 거사는 말을 타는 것과 마른 고기를 지는 것 가운데 무엇이 나쁘냐는 말을 남기고 버린다. 경흥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따라가 보게 하였는데, 거사는 남산 문수사 문 밖에 이르러 광주리를 버리고 사라지고 거사의 지팡이는 문수보살상 앞에 있었다. 심부름꾼이 와서 고하자 경흥은 ‘문수보살이 와서 내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탄식한다. 거사는 문수보살의 현현이었고, 문수보살은 문수사 문수보살상 앞에 현현 때 지녔던 지팡이를 뒀으므로 그 사실을 알린 것이다.¹²⁾

그렇다면 산화공덕의 불교 의례, 범성이 연행될 의례로 기획된 의례가 월명사가 연승으로 선정됨으로써 향가의 힘에 기대는 의례로 그 성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 후에 부처가 현현했다는 기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연의 서술을 다시 보자. 일연은 당대의 조야(朝野), 즉 조정과 민간에서 미륵이 동자로 현현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월명사의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至德與至誠]이 ‘지성(至聖)’을 현현하게 했음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월명사의 등장으로 의례의 성격이 변화했음을 전제한다면, 이는 월명사가 집전한 의례가 비록 범성이 아닌 향가가 연행되는, 불교와는 거리가 있는 의례였다 할지라도 월명사의 지덕과 지성에 미륵불도 감응하여 현현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부처 가운데 하필 미륵이 현현했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일연은 현현

12) 현현한 부처가 물건을 두고 사라져서 사람들이 뒤늦게 그 현현을 알게 된다는 것은 「감통」편의 <진신수공(眞身受供)> 조에도 보이는데, 이는 부처의 현현을 뜻하는 관습적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부처가 왜 미륵이었는데에 대해 별다른 서술을 하지 않았지만, 미륵의 하생은 당대의 국왕을 전문성왕으로 의미화하는 기호로 작동한다.¹³⁾ 『미륵삼부경』에 따르면 미륵은 어지러운 세상에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되고 이상적인 사회에 하생하여 세상을 더욱 청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의례의 성공 이후 미륵불이 하생했다는 것은, 월명사가 의례에서 연행한 노래의 힘이 ‘이일병현’의 ‘일괴’를 ‘즉멸’케 한 현상이 불교 차원에서도 승인되었음을, 또 작금의 세계가 전문성왕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사회임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도술가>가 구연된 의례는 나라에 발생한 천체의 변고를 불교의 승인 아래 국선지도인 월명사의 노래로 해결한 의례이며,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왕권을 이상화하는 효과를 가져온 의례라고 말할 수 있다. 『삼국유사』 「감통」 편의 <월명사도술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권과 불교와 국선지도의 노래가 얽혀 있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도술가>의 의미는, 새삼 강조하건대 이와 같은 얽힘의 양상을 고려하면서 해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꽃’과 ‘미륵’: <도술가>의 의례요적 구성과 의미

4.1. 꽃의 상징성과 ‘일괴즉멸’의 원리

<도술가>는 범성을 모르는 국선지도의 승려가 부른 향가이다. 산화공덕을 하기로 기획된 의례는 의례를 집전할 사제로 향가만을 아는 월명사가 연승으로 지명됨으로써 불교 의례의 형식을 벗어나게 된다. 의례의 전말과 맥락을 고려하면, <도술가>는 불교라고 특정할 수 없는, 월명사가 속한 집단인 국선지도를 특징짓는 사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국선도

13) 미륵 현현의 정치적 기호화에 대해서는 정진희, 「꽃 피우기의 실제와 ‘꽃에게 묻기’의 대안적 가능성」, 『한국고전연구』 41, 2018, 349-350쪽 참조. 미륵 하생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더 상세한 것은 김석근, 「전문성왕, 미륵, 그리고 메시아-미륵신앙의 정치적 기능과 함의에 대한 시론적 접근」, 『동양정치사상사』 9, 2010 참조.

14) 김기중, 앞의 글, 240-241쪽 참조.

(國仙道), ‘풍류도(風流道)’ 등으로도 지칭되곤 하는, 전통 신앙을 포함한 신라의 토착적 사유가 제정(祭政)의 변화 및 외래 사상과의 만남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간 사유 체계가 국선의 무리였던 월명사가 부른 <도술가>에 녹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도술가>를 불교적 노래로 파악하는 시각에서 <도술가>는 종종 연화좌대를 마련하여 미륵을 모시는 내용의 노래로 간주되곤 했다.¹⁵⁾ <도술가>에 등장하는 꽃이 미륵을 불러오는 수단이나 매개로 이해되는 것이다. 꽃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도술가>를 주술의 노래로 보는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도술가>의 꽃은 미륵을 불러오는 도구로 이해되어 왔으며, 나아가 미륵은 꽃에 의해 불러올려져 이일병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종종 이해되곤 했다.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월명사도술가>조의 기록에 따르면 미륵은 이일병현의 문제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동자승의 모습으로 현현했다는 데에 있다. 『미륵삼부경』에 따르면 미륵의 하생은 문제적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바, 두 개의 해가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변괴의 상황에 미륵이 나타나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미륵은 변괴가 사라진 후 현현하여 이일병현의 변괴가 사라진 ‘이 곳’을 전문성왕이 지배하는 나라로 의미화한 존재이기에, <도술가>를 꽃이 미륵을 불러 그 미륵이 이일병현의 변괴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노래로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복하건대 이 당시 미륵은 변괴가 없는 세상에 하생하는 존재이지, 어지러운 세상에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었다.¹⁶⁾ 따라서 <도술가>가 ‘일괴즉멸’의 감통을 이루어냈다면, 그 감통의 논리에 대한 이해는 <도술가>가 꽃을 불러내어 미륵을 모셔왔고 미륵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종래의 상식을 벗어난 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15) 일례로 최근의 선행 연구인 황병익, 「산화 직심·좌주의 개념과 <도술가> 관련설화의 의미 고찰」,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 2015 참조.

16) 불교 본래의 미륵 하생 신앙이 민간의 메시아적 신앙으로 굴절된 것은 신라 하대, 혹은 나말여초 시기였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한 궁예였다는 점은 김석근, 앞의 글, 17-18쪽 참조. 이에 따르면, <월명사도술가> 조의 미륵은 종말론과 구세주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 미륵 신앙의 미륵과 동일시되기 어렵다.

<도솔가>가 드러내고 있는 ‘일괴즉멸’의 논리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해결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도솔가>의 핵심적 시어 가운데 하나이자 첫행에서부터 제시되는 ‘꽃’이다. ‘이일병현’이라는 변괴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례에서 연행된 노래가 꽃을 불러올렸다는 점은, 꽃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의 해결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일 터이기 때문이다. 두 개의 해가 뜬 비정상적인 상황, 다시 말해 하나여야 마땅한 것이 둘이나 되는 문제적 상황에서 꽃이 등장하는 상황은 흥미롭게도 <월명사도솔가>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상황은 아니다. 향가의 시대와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무속 의례에서 구연되는 무가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종종 그려지곤 한다. 예컨대 이 세상을 다스릴 신격은 한 위(位)의 신격이랴 마땅한데 미륵과 석가(지역에 따라서는 대별왕과 소별왕, 선문이와 후문이)가 서로 그 자리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명진국 따님아기가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신격이 되자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그것은 원래 자신의 자리라며 따질 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름아닌 ‘꽃’이 소환되는 것이다.

종래의 무가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의 꽃의 소환을 ‘꽃 피우기 내기’라 지칭해 왔다. 누가 꽃을 피워내는가를 보아 신위를 차지할 신격을 결정한다는 삽화로 그것을 이해해 온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꽃은 신격에 의해 ‘피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피어’ 누가 특정 신위에 좌정할 신격인가를 가려내고 판단하는 존재이다. 꽃은 신격의 힘에 의해 피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특정 신격으로서 적절한가를 가려 달라는 의미에서 소환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삽화는 ‘꽃 피우기 내기’가 아니라 ‘꽃에게 묻기’라는 지칭이 더 적절하다.¹⁷⁾

이일병현의 변괴를 해결할 목적의 의례에서 연행된 노래가 꽃을 소환했다는 <월명사도솔가>의 기록 역시 이런 ‘꽃에게 묻기’라는 서사 유형의 계보에 놓인다는 선행 논의에 의거할 때,¹⁸⁾ <도솔가>가 연행된 의례 이후에 두 해가 뜨는 변괴가 ‘즉멸(卽滅)’한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늘에 뜬 두 개의 물체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한 해인가를 판단해 달라고 꽃이 불러올려지고, 무가에서 꽃

17) 이에 대해서는 정진희, 앞의 글 참조.

18) 위의 글, 346-351쪽 참조.

이 진정한 자격을 지닌 신격에게 피어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던 것처럼 <도솔가>가 연행된 의례에서도 꽃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역할 수행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결과이다. 하늘에 떴던 두 개의 해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고 유일한 해 하나만이 남는다. 꽃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즉각적인 승복이 이루어진 셈이다.¹⁹⁾

판단하고 선택하는 꽃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최근의 연구가 주목해 온 향가의 시어 ‘곧은 마음[直等隱心]’, 한역어로는 ‘은중직심(殷重直心)’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꽃은 곧은 마음이 시키는대로 행하는, 혹은 은중직심에 부리워지는 존재로 그려지는바, 이 ‘곧은 마음’, ‘은중직심’의 본질이 곧 꽃의 힘에 맞닿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⁰⁾ 신화사적 맥락에서 <도솔가>를 풀이한 한 연구에서, 꽃은 “생각을 정묘하게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생각이 우주 자연의 비밀까지 정확히 꿰뚫어보도록 하는” 이른바 ‘사뇌(詞腦/思腦)’의 핵심으로 해석된 바 있다.²¹⁾ 이에 따르면 월명사는 ‘사뇌’의 비법을 수행하고 익힌 자이다. 월명사의 ‘곧은 마음’으로부터 꽃이 구름에 뿌러지고, 구름은 꽃에 의해 정화되어 정확한 판단력으로 두 개의 해 가운데 어떤 해를 맞이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판단력을 지니게 된 구름(=백성)이 진정한 해(=미륵)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가 곧 미륵이며 구름이 곧 백성이라는 해석, 꽃이 곧 월명사의 ‘사뇌’라는 등치, 이 노래가 꽃에 의해 올바른 마음을 지니게 된 구름이 진정한 미륵을 맞이하는 내용이라는 풀이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곧은 마음’, ‘은중직심’의 본질이 ‘정확한 판단’에 있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꽃’은 판단을 위해 소환된 사물인데, 꽃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한 까닭을 여기에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꽃은 ‘곧은 마음’, ‘은중직심’에 의해 작동한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본질은 정

19) 위의 글, 352쪽 참조

20) ‘직심’에 대한 선행 연구의 정리는 황병익, 앞의 글, 400-401쪽 참조. 황병익은 앞의 글에서 ‘직심’을 불교 용어로 이해하고 있는데, <도솔가>의 기반이 불교로 한정할 수 없는 국선지도의 사유에 있다고 보는 본고는 ‘직심’을 순수한 불교적 개념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1) 신범순, 『노래의 상상계: 수사와 존재생태 기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624-630쪽 참조. 직접 인용은 같은 책의 628쪽.

확한 판단력에 있다. 그렇다면 꽃이 두 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하나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변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꽃이 ‘곧은 마음’, ‘은중직심’에 의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곧은 마음’과 ‘은중직심’은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꽃의 본질에 가깝다. 꽃은 그 안에 내재된 ‘곧은 마음’, ‘은중직심’의 판단력에 의거하여 참된 해를 판단해 달라라는 뜻에서 불러올려진 기원의 대상이다. 기원의 결과, 두 개의 해가 뜬 변괴가 즉시 사라진다. 기원에 응답하여 꽃이 진가를 가려내자, 가짜 해가 꽃의 판단에 승복하여 ‘즉멸’한 것이다. 꽃과 직심과 일괴즉멸의 상관 관계는, 바로 이런 논리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견을 통해 볼 때 <도술가>는 ‘판단하는 꽃’의 표상과 꽃에게 진가를 가려달라고 묻는 ‘꽃에게 묻기’ 화소가 확인되는 이른 시기의 사례이다. 현재 채록된 무속 신화에 나타나는 ‘꽃에게 묻기’ 화소가 경덕왕대, 최소한 일연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예증일 터이다.

4.2. 미륵의 출현과 <도술가>의 의식요적 풀이

<도술가>의 꽃에 나타난 상징성, 다시 말해 진가(眞假)를 판별하는 꽃은 이 노래를 지어 부른 월명사가 속한 국선도의 사유에 기반한 것이었을 터다.²²⁾ 월명사가 하필 꽃과 관련된 노래를 지어 부른 까닭을 생각해 본다면 애초에 기획된 의례가 ‘산화’라는 의례 행위에 기반한 산화공덕의 의례였기 때문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불교적 산화공덕의 의례라면 범성의 진언을 외우면서 산화의 의례 행위를 했을 터인데 의례를 집전할 연승으로 선택된 월명사는 그런 의례

22) 이러한 꽃 상징은 어떤 계열의 사유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인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심사자의 지적이 있었다. 월명사가 노래로 불러올린 꽃이 국선지도의 사유, 국선지도의 상상력과 관련된 꽃임은 짐작할 수 있지만, 국선지도의 사유 자체가 복합적이기에 이러한 꽃 상징의 사상적 근원을 특정하여 단언하기란 지금으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편무영의 선행 연구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편무영은 오늘날 무속에서 볼 수 있는 생불꽃이 무불습함으로 형성된, 불교적 꽃 표상의 영향으로 본 바 있다. 편무영, 「생불화를 통해 본 무불습함론」, 『비교민속학』 13, 1996.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 한국문화사에서 확인되는 꽃 표상의 상징적 의미와 그 계보가 논의되어야 ‘판단하는 꽃’의 사유적 기반이 좀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과제의 필요성은 정진희, 앞의 글에서도 제기되나, 추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를 실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국선지도의 사제이다. 월명사는 불교적 의례 행위 대신 <도솔가>라는 꽃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산화공덕 의례의 형식적 내용을 채운다. ‘꽃’을 매개로, 의례 형식의 비(非) 불교적 전환이 국왕의 허락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도솔가>의 마지막 행에는 불교의 지성(至聖) 가운데 하나인 미륵, 즉 ‘미륵좌주(彌勒座主)’가 등장한다. <도솔가>가 불교적 사상과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해석, <도솔가>는 꽃이 미륵을 모시게 함으로써 미륵이 변괴를 해결하기를 기원하는 노래라는 해석의 주된 근거 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미륵의 현현이 변괴의 해소 이후에 일어났음에 주목하여 이를 이일병현의 변괴가 즉멸한 시공간을 전문성왕의 치세 하에 있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이야기로 보았다. 그런데 이미 변괴의 해소를 기원하는 노래에서 ‘미륵좌주’, 즉 ‘미륵’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솔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의례에서 구연된 의례요라는 데 주목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기로 하자.

<도솔가>는 본문의 끊어쓰기를 수용할 때 3행의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구체 향가로 분류된다. 3행으로 보든 4구로 보든, <도솔가>는 의례요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행 / 제1·2구	- 기원 행위의 묘사	- 꽃을 하늘로 보냄
제2행 / 제3구	- 기원 실현의 논리 제시	- 곧은 마음의 발현
제3행 / 제4구	- 기대되는 결과의 언어적 실현	- 미륵좌주의 현현

제1행(제1·2구)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의 행위, 기원 행위를 묘사한다. <도솔가>에 따르면 꽃노래를 불러 꽃을 하늘에 보내는 행위이며, 일연의 한역 시에 따르면 산화가를 부르며 한 송이 꽃을 청운에 뽑아 보내는 행위이다. 어떻게 묘사되든 그 의례의 핵심적 상관물이 꽃이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 다음 제2행(제3구)은 이일병현의 변괴 앞에서 어떤 이유로 꽃을 중심으로 하는 의례를 행하는가 하는, 다시 말해 꽃이 변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다. 꽃의 곧은 마음이 진가를 가려내리니, 이로 인해 이일병현의 변괴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표현은 꽃 의례를 행하면 꽃이 곧은 마음을 발휘하여 변괴가 해소되리라는 기원의 내용이다. 그런데 노래는 이런 기원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진다. 변괴가 해소되어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를, 다시 말해 의례가 성공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의례요로 미리 상상하는 것이다. <도술가>가 그려내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실현될 것이 기대되는 그 결과란 ‘미륵의 현현’이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 입 밖으로 내뱉는 노랫말은 실현의 힘이 있다. 의례요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미 실현된 것처럼 표현하는 사제가 드물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말의 힘 때문이다. <도술가> 역시 의례의 결과로 이루어질 기대되는 상황을 노랫말로 드러내고 있으며,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미륵의 하생이다. 미륵의 하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월명사가 보통 승려가 아니라 국선의 무리에 속한 사제임을 다시 상기하자. 국선지도는 월명사가 <도술가>를 지어 부른 경덕왕 대에는 이미 공식적으로는 폐지되기는 했으나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였던 화랑도에 뿌리를 둔 무리들이다. 화랑도는 미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진지왕 때의 국선 미시랑은 미륵선화의 화신이었다.²³⁾ 화랑과 미륵의 관련은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미륵의 화신인 화랑은 당대의 국왕이 전문성왕이라는 가시적 징표로 기능할 수 있었다.²⁴⁾ 화랑도 및 국선도는 이런 맥락에서 일찍부터 미륵과 관계되었던 것이다.²⁵⁾

그러니 월명사가 <도술가>의 마지막 행을 미륵의 임제로 마무리한 것은 꽃의 힘으로 일괴가 즉멸한 이후의 세상은 미륵이 현현할 정도로 이상적인 세계가 되리라는 것, 다시 말해 전문성왕의 세계가 되리라고 예언하며 그 실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왕권 강화의 정치적 의도 하에서 미륵과 밀접하게 관계되었던 화랑도·국선도의 사상적 흐름이 월명사의 <도술가>에도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명사는 꽃의 상징을 이용하여 변괴가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그 결과로 미륵이 하생할 것임을 노래하였다. 결국

23) 『삼국유사』 「탐상」편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 조 참조.

24) 김석근, 앞의 글, 14-15쪽 참조.

25) 미륵과 화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현설, 앞의 글, 131-132쪽 참조.

월명사는 경덕왕 당대가 천문의 변괴나 일어나는 어수선한 사회가 아니라 전문 성왕이 지배하는 이상적 치세임이 확인되기를 바라는 노래로서 <도솔가>를 불렀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도솔가>의 의례요로서의 최종적 기능은 악장과 같은,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솔가>는 꽃이 변괴를 해결해 주기를 기원하는 노래인 동시에 또 작금의 왕을 전문성왕으로 의미화하는 미륵의 현현을 노래로 재현함으로써 왕권의 절대화를 기원하는 노래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문면의 의미와 의식요로서의 기원을 포함한 <도솔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래일 수 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꽃 노래, 꽃 제사를 지내어 꽃을 불러올리네.

(이일병현의 변괴가 일어났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네.)

곧은 마음이 꽃을 부리겠지.

(꽃의 곧은 마음이 가짜 해를 가려내면 일괴는 즉멸할 것이라네.)

미륵좌주를 피서라.

(일괴가 사라져 조화로운 세상이 되니, 미륵좌주가 현현하셨네. 우리 왕은 전문성왕이시라네. 모두들 미륵좌주를 모시게나.)

이런 풀이에 따르면 화자는 의례의 집전자인 월명사이고, 청자는 의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될 터이다. 그런데 ‘꽃아, 너는[花良汝隱]’으로 해석되는 제1행(제 1·2구)의 마지막 부분은, 이 행에서의 내적 청자가 다름 아닌 ‘꽃’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꽃 의례에서 기원의 행위를 묘사하고 그 기원의 논리를 제시하는 부분이기엔, 내적 청자가 ‘꽃’으로 설정된 것이다. 꽃에게 기원을 한 다음 마지막 행에서는 기원의 성공으로 기대되는 현상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례요의 내적 청자는 의례의 현장에 참여한 외적 청자들로 전환되고 있다. 의례에서 노래를 부른 월명사는 기원의 대상이 되는 ‘꽃’과 꽃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요구를 초월적 대상에게 전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인간에게 알려주는 의례적 사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도솔가>는, 월명사가 사제 역할을 맡아 부른 의례요였던 것이다.

새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솔가>가 연행된 의례가 다름 아닌 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꽃과 사람들, 그 사이를 오가는 월명사가 자리한 의례의 현장을 ‘청양루’에 올라 지켜본 이, 의례가 끝난 후 포상을 내린 이는 바로 국왕 경덕왕이었다. 불교와 국선지도가 꽃과 미륵을 매개로 접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왕권’이라는 힘이 그 둘을 끌어당겼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신라 사회에서 불교는 왕권을 위한 이념으로 먼저 수용되었으나 이후 사상적, 종교적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었고, 국가 조직으로 형성된 화랑도 역시 초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정치색이 약화된 이른바 풍류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불교와 풍류도를 경덕왕이 국가적 의례로 끌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라 시대 여러 사상과 종교의 혼용은 ‘왕권’이라는 블랙홀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 아울러 경덕왕의 치세는 이미 예전에 정치적 생명을 다했던 국선지도가, 그리고 이미 집단적 의례요가 아닌 개인적 시가로서 고도의 경지에 올라 있던 향가가 국가 의례에 소환될 만큼²⁶⁾ 왕권의 위상이 오히려 굳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도솔가>는, 이런 상황에서 왕조 의례에 소환되어 창작, 구연된 향가라는 점에서 그 탄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고는 <도솔가>와 <도솔가>가 연행된 의례에서 꽃이 미륵을 모셔왔기 때문에 이일병현의 변괴가 해결되었다는 종래의 해석에 반하여 일괴즉멸을 가능케 한 주체는 미륵이 아니라 오히려 꽃이라고 본다. ‘공은 마음’으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존재로 불러올려진 꽃은 샤머니즘적 주술의 도구나 불교적 주술 도구로 단언하기 어려운, 국선지도의 상상력에 기반하는 기원의 대상이며, <도솔가>와 그 배경 설화에 등장하는 미륵은 변괴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변괴 해결 후의 세상을 이상 세계로 의미화하는 기호로 보는 것이다.

26) 정치적 효과를 겨냥한 경덕왕의 향가 활용에 대해서는 이현우, 「경덕왕대 향가 5수의 사상적 배경과 의미 분석」, 『국제어문』 73, 2017 참조.

<도솔가>는 이일병현의 변괴를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된 산화공덕의 불교 의례에서 연행된 의례요이다. 불교 의례라면 의당 불교 노래나 음악이 연행되어야 하지만, 국선의 무리인 월명사가 의례의 주관자로 결정되면서 향가인 <도솔가>가 연행되었다. 산화공덕의 불교적 의례 형식이, <도솔가>를 통해 꽃을 불러올리는 노래의 의례로 변화한 것이다. <도솔가>는 부처에 대한 찬미나 부처의 연화좌대를 의미하는 불교적 꽃을 소재로 가져오되, 아마도 국선지도의 상상력에 기반해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는 꽃의 상징성, 다시 말해 ‘곧은 마음’을 발휘하여 진가(眞假)를 변별하고 판단하는 꽃의 상징성을 토대로 변괴를 해소하는 의례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월명사가 지어 부른 <도솔가>에 등장하는 꽃은 불교적 상징 체계의 꽃이라기보다 월명사가 속해 있던 국선 무리의 사유 체계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륵’ 역시 화랑도의 시기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국선과 미륵의 상관성, 또 이를 통해 구현하려 했던 정치적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월명사는 꽃을 불러올려 이일병현의 변괴가 해소되기를 기원하고, 변괴가 해소된 시공은 전문성왕이 지배하는 이상적 공간 이리라고 미륵의 현현을 예언함으로써 축원했던 것이다.

<월명사도솔가>조는 <도솔가>가 연행되자 일괴는 즉멸하고 의례의 성공을 포상하는 자리에 미륵이 현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도솔가>라는 의례요가 기원하고 축원한 바가 현실화한 것이다. 일괴즉멸은 <도솔가>가 꽃을 감동시킨 결과이고 미륵의 현현은 <도솔가>가 불교의 지성 미륵불을 감동시킨 결과이다. 일연은 <도솔가>를 향가가 천지귀신을 감동시킨 대표적 사례로 기록한 바, 결국 <도솔가>는 향가가 천지귀신에게 기원하는 국가적 제의에서의 의례요로 활용되어 실제로 그 기능을 다했던 하나의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다.

<도솔가>를 ‘국가적 제의에서 의례요로 활용된 국선지도의 향가라 할 수 있다면 이는 토착의 시가 전통에 따른 향어(鄉語)로 된 시가가 왕조 제의의 의례요로 포획된 사례로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솔가>의 사례는 종종 천지귀신을 감동시킬 정도의 전문적 향가 연행자가 있었고 그러한 향가가 왕조 의례의 의식요로 동원되기도 했음을 보여주는바, 이는 이러한 힘을 지닌 향어 노래의 전통이 조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제의에서의 의례요와 어떤 상관 관계

에 놓이는가를 고찰할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 주기도 한다고 본다. 여말선초의 악장, 이웃 나라 류큐[琉球]의 왕조 의례요인 ‘오모로(おもろ)’ 등 향어로 된 왕권 의례요의 비교 논의에서, <도솔가>는 향어 노래가 왕권 의례요로 활용되는 시기적 선례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솔가>는 꽃 표상의 상징성을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로서도 중요하다. 본고는 ‘진가를 판별하는 꽃’이라는 꽃의 표상이 불교와 국선지도의 접점으로 기능한 사례를 확인한바, 여기에서의 논의가 『삼국유사』는 물론 여타의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을 아우르는 한국문학사에서 꽃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력의 계보를 추적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기중, 「<도솔가>, 불국토의 선언」, 『한국시가연구』 38, 2015, 225-250쪽.
(UCI: G704-000454.2015.38..010)
- 김석근, 「전륜성왕, 미륵, 그리고 메시아-미륵신앙의 정치적 기능과 함의에 대한 시론적 접근」, 『동양정치사상사』 9, 2010, 5-22쪽.
(UCI: G704-001873.2010.9.1.003)
- 신범순, 『노래의 상상계·수사와 존재생태 기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858쪽.
- 엄국현, 「도솔가 연구」, 『한국민족문화』 43, 2012, 109-140쪽.
(UCI: G704-001560.2012..43.005)
- 윤소희, 「월명사의 성범에 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31, 2015, 111-144쪽.
(UCI: G704-SER000010552.2015..31.004)
- 이도흠, 「도솔가와 화엄사상」, 『동아시아문화연구』 14, 1988, 93-129쪽.
- 이도흠, 「도솔가의 화쟁시학적 연구」, 『고전문학연구』 8, 1993, 50-91쪽.
- 이민홍, 「신라 악무에서 향가의 위상과 <도솔가>의 악장적 성격」, 『고전시가 엮어 읽기』, 태학사, 2003, 68-94쪽.
- 이현우, 「경덕왕대 향가 5수의 사상적 배경과 의미 분석」, 『국제어문』 73, 2017, 269-290쪽.
- 일연(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4, 1-505쪽.
- 임주탁, 「소통 문맥을 통해 본 향가의 특성과 그 의미」, 『어문학』 118, 2012, 119-153쪽.
(UCI: G704-000112.2012..118.011)
- 임주탁, 「고시가 연구의 현재와 미래」, 『어문학』 134, 한국어문학회, 2016, 345-377쪽.
(UCI: G704-000112.2016..134.011)
- 정진희, 「‘꽃 피우기’의 실제와 ‘꽃에게 묻기’의 대안적 가능성」, 『한국고전연구』 41, 2018, 327-361쪽.
- 조현설, 「두 개의 태양, 한 송이의 꽃-월명사 일월조정서사의 의미망」, 『민족문화사연구』 54, 2014, 113-140쪽.
(UCI: G704-000519.2014..54.008)
- 최선경, 「도솔가의 제의적 성격」, 『연민학지』 9, 2001, 95-116쪽.
- 편무영, 「생불화를 통해 본 무불습합론」, 『비교민속학』 13, 1996, 573-603쪽.
- 황병의, 「산화 직선 좌주의 개념과 <도솔가> 관련설화의 의미 고찰」, 『한국고시가문화 연구』 35, 2015, 393-425쪽.
(UCI: G704-001062.2015..35.006)

| Abstract |

***Tosolga*(兜率歌) as a Ritual Song for king and Kingdom**

Jeong, Jin-hee

In this study, *Tosolga*(兜率歌), known as a sort of Korean classical poetry *Hyang-ga*(鄉歌), was discussed as a ritual song for king and his kingdom.

According to the story about *Tosolga*(兜率歌), documented in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it was performed at kingdom rite to calamity, two suns appeared in the sky, by monk *Wolmyeong*(月明師). It affected the flower to judge and choose the real sun, and consequently, *Maitreya* manifested as a boy monk after only one sun remained as before.

Tosolga changed the Buddhist flower ritual, scattering flowers for praising Buddha, to the non-Buddhist ritual in which the flower could tell the good from bad through its own pure mind. The manifestation of *Maitreya* meant that the king is the cakravartin, a Buddhist ideal ruler. This study argued that the flower and *Maitreya* in *Tosolga* is the symbols of *Kukseondo*(國仙·花郎·風流) rather than Buddhism.

Tosolga shows that *Hyang-ga*(鄉歌) was used as a ritual song for the king and kingdom. From this point, *Tosolga* can be a clue to solving the literatural problem on the relation of ritual songs for kingdom and traditional folk songs.

Key words : *Hyang-ga*(鄉歌), *Tosolga*(兜率歌), *Maitreya*, Flower, Kingship, Ritual song